

OB맥주 광주공장 정말 팔리나

판매부진... 가동률 하락에 매각설 나온다

김준영 사장 "롯데칠성 M&A說 사실무근"

지난해부터 OB맥주 광주공장 매각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진위여부에 대해 광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7년 설립된 광주공장은 지속적인 판매부진으로 지난해 15명의 인원을 구조조정했으며, 8월말 현재 가동률이 35%로 푹 떨어져 이 같은 매각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태다.

직원수 228명인 광주공장은 연간 1천 200만 상자(500ml 20개 들이)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매각내용을 들은 바 없지만, 매각된다면 불행한 일"이라며 "20여년 동안 고용창출 등 광주경제에 적지않은 도움을 준 OB광주공장이 회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준영 OB맥주 사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롯데칠성으로의 매각설에 대해 "현재 (모회사인) 인베브는 OB맥주 매각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맥주사업이 돈되는 비즈니스여서 5년 전부터 이런저런 설은 많이 나왔고, 또 외국계 은행들이 여기저기서 인수합병(M&A) 작업을 하고 있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문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광주공장 매각설에 대해서도 많은 루머가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사장은 이런 루머의 배경을 두고 "롯데는 종합적인 주류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는 것 같고, 이를 위해 맥주시장에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김 사장은 향후 주류시장 전망에 대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가동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OB맥주는 가정용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산 수입맥주와 관련, 김 사장은 "수입맥주들이 국내 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해 아직 유력한 경쟁상대는 아니지만, 점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OB맥주는 인베브 대표 브랜드의 국내판매도 맡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사장은 "인베브가 가진 30여 개국 사업장 가운데 이익규모 등에서 한국은 캐나다·브라질·영국·독일·벨기에 다음으로 6위"라며 "우리가 빠진다면 인베브로서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몽골 유연탄광 개발" 한-몽골 자원협력촉진 논의

몽골 고비지역의 더르너고비 유연탄광에 대한 철로운송권이 확보돼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의 연료에너지부 및 산업통상부와 제6차 한·몽골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이번 회의 결과, 그동안 논의된 협력 사업 중 몽골 고비지역의 유연탄광 개발과 신재생에너지파크 조성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리나라 코렛(Coret)사가 몽골 더르너고비 2개 광산에 대한 매입 계약을 지난 7월에 체결한데 이어 오는 15일 몽골 철도회사와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몽골 해외투자부역청과의 투자보장계약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산담배 '에세' 작통 인도·중국 등서 판매

국내 담배 판매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에세' 모방품이 해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14일 KT&G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에세'의 담배갑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Live'라는 담배가 출시됐다.

'JAGALAH KEBERSIHAN'이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이 담배는 현지 시장조사를 위해 출장에 나선 KT&G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KT&G 관계자는 "모방품은 담배갑 디자인이나 색상 등에 있어 '에세'를 완전히 빠진 제품"이라며 "지난 2004년부터 '에세'가 동남아시아에 수출되면서 '에세'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제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에세'의 '작통' 담배가 등장했다.

이 제품은 디자인은 물론 아예 브랜드 명과 KT&G라는 회사 이름까지 도용한 상태로 현지에서 팔리고 있다. 다만 길쭉한 길이는 국내 '에세'가 100mm인 반면 중국 '에세'는 84mm다.

올해 초 일본에서는 '에세'라는 이름의 자동차가 출시돼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車·반도체 '맑음' 가전·건설 '흐림'

商議, 4분기 주요업종 전망

올 4·4분기 자동차와 반도체는 호조가 예상되는 반면, 전자와 건설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주요 업종의 2006년 3분기 실적 및 4분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업종은 일단락 관련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공급차질 문제가 해소됐고, 반도체 업종은 주력 수출품목인 낸드플래시 시장 확대가 지속되면서 각자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에 있어서는 고급 레저용 차량 등 신규 모델 수요 확대로 9.2% 늘고, 수출에서는 중소형 차량 수출을 중심으로 1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나아가 4분기 생산 증가율도 15.0%로 예상됐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인 D-RAM 공급부족 현상 지속으로 국내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낸드플래시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어 4분기 생산(20.0%)과 수출(19.9%) 모두 20%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소비심리 둔화로 내수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가전, 부동산 규제강화와 이에 따른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종의 4분기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의 경우 수출에 있어 디스플레이, 대형 냉장고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8.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는 계속된 소비부진으로 3분기(-2.6%)에 이어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0.4%)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중·저가 패션 브랜드인 '테라노바'가 16일 광주신세계 패션스트리트에 74평 규모의 국내 1호점을 열고 본격 영업에 들어간다. 테라노바는 가격적인 가격대와 다양한 상품을 통해 이탈리아 뿐 아니라 북미 등 전 세계 33개국 407개 매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티셔츠 1만원대, 점퍼 3~5만원대, 진을 포함한 팬츠종류 5만원대 등이며, 20대를 주고객으로 한다. <광주신세계제공>

e-러닝시장을 매출 1천억대 급성장

전자부품업 전망... 솔루션·콘텐츠·서비스분야 확대 온라인 교육생 급증, 온·오프라인 시너지 효과 기대

지난해 선두기업의 연간 매출이 500억원에도 못미쳤던 e-러닝 기업들이 올해 들어 발전을 거듭하며 500억~1천억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e-러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e-러닝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14일 전자부품연구원원의 'e-러닝 관련 국내 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조2천589억원 규모를 기록한 e-러닝산업은 2005년에는 1조5천746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했고 오는 201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해 e-러닝 시장은 1조9천1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사닷컴 등 분야별 e-러닝 대표기업들은 폭발적인 온라인 교육생 증가와 온·오프라인 시너지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최고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e-러닝 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본 궤도에 오른 e-러닝 시장은 온라인으로 한정됐던 교육 방식을 방송으로까지 확장했으며 산업 범주도 솔루션·콘텐츠·서비스 등으로 넓혀진데다 최근 u-러닝, m(모바일)-러닝으로 의연도 확대되고 있어 시장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러닝 지출을 소비주체별로 보면 개인(6세이상)은 2005년 총 6천715억원으로 전년도 6천690억원보다 0.38%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기업의 e-러닝 지출은

2005년 6천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대기업은 22.9%, 중소기업은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e-러닝 지출은 944억원,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은 18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13.6%, 39.1%씩 확대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은 높은 교육열과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IT기술 인프라, 게임·영화 등의 콘텐츠 부문의 광범한 성장으로 e-러닝을 위한 좋은 토양을 갖추고 있다"며 "e-러닝은 IT기술과 교육콘텐츠가 결합된 완성체이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e-러닝은 전자 매체를 기반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모든 학습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 사이버 가상교육, 웹기반 교육, 원격 교육 등을 포함한 정보기술을 이용한 e-비즈니스이다.

동아건설 사업면허 28개중 16개 면허 회복여부 불투명

매각작업이 진행중인 동아건설의 기존 사업면허 28개 가운데 전기공사면허 이외에도 16개 면허의 회복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건설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원전사업에 필요한 전기공사면허와 실적은 최근 산업자원부 유권해석을 통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14일 동아건설 매각을 주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동아건설 사업면허 중 현재 유효한 것은 해외건설업과 폐수방지시설업, 대기방지시설업, 엔지니어링 등 4개이다.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상 일반공사업 등록), 가스시설공사업, 준설공사업, 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이상 전문건설업 등록) 등 7개 면허는 현재 건설교통부의 회복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최근 면허복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전환될 경우 면허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 가전품 기술력·품질 향상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하이얼 등 국내에 진출한 중국 가전업체들이 기술력과 품질 등의 측면에서 국내업체들과의 격차를 좁히며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업체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세계로 진출하는 중국 전자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국산 제품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업체의 제품 가격 경쟁력은 와인냉장고 140, 소형냉장고(250ℓ 이하) 130, 에어컨(벽걸이형 4~10평) 120, 소형세탁기(4kg이하) 115, PC 105 등 국산제품보다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산제품과의 기술 경쟁력 격차는 와인냉장고 1년, 소형냉장고와 에어컨, 소형세탁기 1.5년, 진공청소기 2년, 품질은 와인냉장고와 소형세탁기 90, 소형냉장고 85, 에어컨 80, 디자인은 와인냉장고와 소형세탁기 95, 소형냉장고와 에어컨 85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PC의 경우 국산제품과 기술력이 나란히, 품질 격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중국산 PC와 와인냉장고 등은 디자인과 품질이 국산 수준에 근접하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향후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에어컨도 디자인과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대비 성능이 좋아 향후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했다./연합뉴스

"내년 원달러 환율 900원 아래로 내려갈 것"

미국 내에서 최고의 경제분석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손성원 LA한미은행장은 내년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900원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손 행장은 이날 맨해튼에서 뉴욕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경수수지 적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금리정책이 약달러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가치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생각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많이 내려갈 확률이 높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세계 1위 조선업계 '생일상' "이보다 풍성할 수 없다"

3회째 맞은 '조선의 날' 성대한 행사

부동의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가 15일 세번째 생일을 맞았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조선의 날(Shipbuilding Korea 2006)'은 최근 국내 주요 산업이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추축거리하는 반면 유독 조선업만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열리는 행사라 더욱더 의미가 크다.

조선공업협회는 15일 김장진 협회장 및 정부, 학계, 업계 등 2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센터에서 '조선의 날' 행사를 성대히 거행한다.

정부는 그동안 '조선의 날'에 유공자를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는데 올해는 지위를 한단계 격상시켜 산업

포장을 처음으로 수여한다.

'조선의 날'은 조선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에 비해 변변한 기념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2004년 국내 조선업의 수주가 1천만GT를 달성한 9월 15일을 기념해 제정됐으며 매년 행사 규모를 조금씩 키워오고 있다.

올해에는 기념식과 더불어 '조선 선도국으로서의 기술력 유지 및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벌이며 이 자리에는 봉현수 현진중공업 전무, 홍석원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장,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한다.

한편 올해 조선업은 사상 처음으로 200억달러 수출 고지를 돌파하고 동시에 국내 조선 빅3의 수주액도 4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토공, 광주·전남 등 국유지 35만평 매각

한국토지공사는 광주, 서울 등 전국의 국유지 50건, 35만6천평을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공사가 견고 부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해오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관 국유지로서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 28건, 9천평 ▲상업지역 2건, 1천평 ▲공업지역 4건, 1천평, ▲녹지지역 12건, 32만2천평 ▲기타 용지 4건, 2만3천평 등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가 오치동과 진월동 대지 2건에 91평, 전남이 보성군 노동면 임야와 여수시 둔덕동 논, 여수시 삼산면 밭 등 3건에 1만8천110평을 받아 27일 개찰한 뒤 내달 9일부터 계약 체결할 예정으로 입찰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회화인테크	미술, 디자인/기획, 인테리어창작등	초대졸/경력3년	2800~3000	09/15	062-521-4567
램스(lambs)	Content 부서 기획자 모집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9/15	062-350-0011
스텔스*	[삼성광주전자]냉장고개발실 관리직 채용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9/16	062-351-6050
태정산업*	제품검수 및 품질관리	초대졸/경력1년	1600~1800	09/19	062-953-2300
포드광주서비스	사무직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9/20	062-515-1112
천복금형	CNC 머신인 기계적업자 모집-초보가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0	062-946-1228
날일동	[경리.회계/ITM/영업/관리]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9/20	062-236-3803
태간정공	경리/회계/관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20	062-383-4010
현성테크노	생산직 사원 채용 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2	062-942-6251
그린텔	KTF 광주점서비스센터 정규직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2년	1600~1800	09/22	042-223-4900
세기정보통신*광주지사	웹개발자 채용	대졸/경력2년	2400~2600	09/22	062-512-5080
지이오하우스	폭스바겐 자동차 정비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2	062-351-9500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2006년 분야별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5	010-6654-3480
현대대리안	인조대리인 상품 제조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25	062-956-685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